

# 새싹 편지

2011. 3월호



## Woosong News

- 우송유치원 개원
- 교육봉사
- 학술제 준비
- 우쿨렐레 수업

## Our Story

- MT 취소
- 한희경 교수님 인터뷰



### 우송유치원 개원하다!



우송대는 2011. 9.1일 서캠퍼스에 우송유치원을 개원했습니다. 존 앤디컷 총장님과 유아교육과 교수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송유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설하였습니다. 넓은 강당과 복도와 교실의 구분을 없애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급식실을 따로 만들어 아이들의 위생관리에 신경을 썼으며 외국인 교수님의 자녀들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는 국제학급을 만들어 외국인 교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우송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기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치원개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미리 체험을 할 수 있어 좋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우송유치원은 유아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기초교육을 실천한다 하였습니다.



### 우송유치원은 우리들의 손으로! —교육봉사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2011학년 2학기 우송유치원 교육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교육봉사는 9월 1일부터 겨울학기까지 오전(8:50~12:00)과 오후(13:00~17:00)에 실시하며 유아교육과 1학년B반,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송유치원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학년별로 돌아가며 총 3번의 봉사를 나갑니다. 학생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도움을 주고, 아이들의 간식준비와 뒷정리 등을 합니다. 봉사를 나간 학생들은 ‘매일 선생님이 바뀌는데 낯을 가리지 않고 다가와주는 아이들이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잠시나마 도움을 주는 일이지만, 봉사를 통해 몸소 경험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한발 다가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 학술제를 준비하다

2011년 학술제는 A반과 B반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A반은 햇님달님 동화책을 주제로 포토존과 블랙나이트 그리고 이야기 꾸미기를 구성하였습니다. 햇님달님 이야기를 바탕으로 포토존을 할 수 있는 배경과 바닥에 이야기를 꾸미기도 하고 검은 천막을 감싸서 형광색지로 만든 것에 빛이 반사되어 보이게끔 만드는 블랙나이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B반의 주제는 백설 공주인데 동화책에서 마



녀가 독사과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튜리아트처럼 입체감 있고 재미있게 구성했습니다. 2학년 선배들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 학술제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재료를 사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재료를 사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우쿨렐레도 연주할 줄 아는 우송대 유아교육과

우송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1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대학으로 선정되어 4년간 100억 원 및 2년 연속 교육역량강화 사업 선정으로 2011년 26억원 등 모두 126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아교육과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우쿨렐레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무료로 강의를 하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우쿨렐레는 기타보다 작고 가벼우며 피아노처럼 멜로디와 반주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아노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연주할 수 있어서 어느 장소에서나 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현직 교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타 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필수 악기처럼 여겨지고 있어 인기몰이 중입니다. 우쿨렐레는 2,3학년 을 대상으로 받을 나누어 주 1회 2시간씩 강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쿨렐레는 기타보다 작고 가벼우며 피아노처럼 멜로디와 반주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아노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연주할 수 있어서 어느 장소에서나 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현직 교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타 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필수 악기처럼 여겨지고 있어 인기몰이 중입니다. 우쿨렐레는 2,3학년 을 대상으로 받을 나누어 주 1회 2시간씩 강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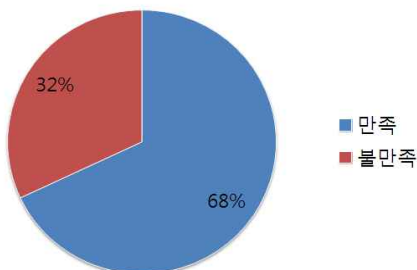


### M.T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M.T 취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M.T 취소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34명으로 불만족 하는 학생보다 많았습니다.

M.T 취소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M.T 시기도 놓쳤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장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곧 중간고사 기간인데다 학술제, 축제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취소된 편이 낫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M.T 취소에 대해 ?



불만족에 의견을 두었던 학생들의 입장으로는 아직 서로 얼굴도 모르는 선, 후배 사이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친해 질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전했고, 유아교육과만의 추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학과 측에서는 곧 학술제와, 축제 등 학교 행사들로 인해 취소가 되었다고 전했으며, 학생들은 M.T 취소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학교생활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 - 한희경 교수님 인터뷰

이번학기에 우송대학교에 새로 오시게 된 한희경 교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학생들이 새로 오신 교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Q.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오시게 된 계기와 오셔서 느낀 점 좀 말씀해주세요.**

A. 발전하고 있는 우송대의 소문을 듣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송대에 와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점은 다른 교수님들이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매우 크시고 의무감이 투철하신 모습들이 놀라웠습니다.

**Q. 교수님으로 오시기전에 계셨던 곳은 어디신가요?**

A. 미국에서 유아교육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문화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유아 언어교육을 더불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지금 교수님께선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들만 수업을 맡고 계시고 있으신데, 수업을 듣지 않는 1.2학년 학생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A. 안녕하세요~ 1.2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학기에 제 수업이 없어서 많이 서운하시죠? 다음 학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기로 해요.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학술제 활동과 다문화 활동 교재 연구반에 참여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 많이 갖도록 해요~

**Q. 다문화 활동 교재 연구반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A. 아직 완벽히 계획되진 않았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문화 교재 교구활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현대 사회 요구에 맞추어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이해하는 시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구요.

**Q. 유아교육과 선배님 그리고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없으세요?**

A.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참 착하고 수업할 때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모습을 볼 때 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우송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이들과 있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소한 것부터 배워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신중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과 학생들이 과제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워요. 하지만 지금 앞에 놓인 과제만 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유아교육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공부했으면 합니다.^^\*

# 유아 상식

## 건강한 치아를 위한 영유아 양치질 방법!

아이들의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유아 양치법과 양치질 습관을 들여야 하죠! 올바른 양치법이나 양치질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치아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썩은 유치를 빨리 영구치로 대신하게 되더라도 빈 자리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 치열이 고르지 않고 영구치 충치가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아직 치아가 없거나 유치가 자라고 있는 유아는 단단한 성인 칫솔이나 어린이 칫솔을 이용한 양치법을 하게 되면 잇몸에 상처를 줘서 아프고 치아 건강에도 해롭죠. 처음 양치질을 시작할 때에는 치약은 쓰지 말고 부드러운 실리콘 칫솔을 이용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입을 약간 다물게 하고 치아와 잇몸에 원을 그리면서 칫솔을 돌리면서 닦아 준 다음, 입을 약간 벌리게 하고 칫솔을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좌우로 골고루 닦아 줍니다. 아이가 자신의 칫솔로 양치질을 시작할 때에는 아이를 안아 거울을 보면서 올바른 양치법을 익혀 주도록 합니다. 이때부터는 성인의 일반 양치법 요령으로 양치질을 하면 됩니다. 유아 양치법 양치질 연습을 하다가 보면 양치질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죠. 이럴 때에는 부모가 먼저 양치질 시범을 보여 주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곧잘 양치질에 익숙해질 거예요.



##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 4단 만화



<개꿈>

티스푼, 종이배, 못, 8분음표, 촛불, 고추

By. 또바기

<발행처>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http://childedu.wsu.ac.kr>  
042) 630-936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300-718)

<발행인> 성원경 <편집인> 이예지

<만든이>

- \* 박민정 \* 안선경 \* 이예지
- \* 김연수 \* 문진아 \* 송하나 \* 박혜령
- \* 김민아 \* 이정은 \* 조아름